

전자산업진흥회, 대일 시장개척단 2300만달러 상담 실적

본회는(http://www.eiak.org)는 중소기업 전자부품 업체 14개사로 시장개척단을 구성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일본에서 전자부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2300만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일본 도쿄, 후쿠오카 등 2개 지역에서 본회와 KOTRA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상담회에는 도쿄에서 62개사, 후쿠오카에서 60개사 등 총 122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서 광 스피리터, 휴대폰용 힌지, 이동통신용 안테나 등이 관심을 끌었고 택트스위치, 산업용 온도 컨트롤러 등도 상담성도가 높았다. 특히 M사는 일본의 NDK사에 200만달러 규모의 광 스피리터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수출계약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상담회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일본 사람 특유의 철두철미한 품질 요구와 까다로운 납품조건 등으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지만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곧 세계적인 제품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했다”고 밝혔다.

본회는 “지난해 대일본 전자부품 무역수지는 3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부품의 국산화 개발 노력과 일본으로의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산 로제타넷 솔루션 국제 표준인증 획득

국내에서 개발된 로제타넷 기반 솔루션이 국제표준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급진장이 점쳐지는 차세대 전자상거래 표준인 로제타넷 부문에서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몇 개의 국산 로제타넷 솔루션이 개발됐지만 상용화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본회 로제타넷코리아(위원장 김상근)는 e비즈니스솔루션업체인 큐빅싱크(대표 장진태)와 공동으로 최근 로제타넷 허브 솔루션 'CT BIT 로제타넷+' 개발을 완료하고, 국산으로는 최초로 로제타넷 국제 표준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12월 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솔루션은 로제타넷 기반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문서중계가 가능하도록 비즈니스 프로세스 엔진, 로제타넷실행프레임워크(RNIF), 문서송수신지원 프로토콜, 보안 및 협업 응용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사설(P2P)거래뿐만 아니라 개방형(퍼블릭)거래를 할 수 있는 허브 형태로 개발, 중소기업과 해외의 협지법인·협력사 등도 큰 재정적 부담없이 구축할 수 있게 만들었다.

로제타넷코리아와 큐빅싱크는 특히 국제 표준인증을 획득,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인증은 로제타넷 표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적합성 테스트와 기업간의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상호운용성 테스트 등 200여종의 테스트를 거쳐 획득한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 표준인증 테스트를 통과한 솔루션은 4개밖에 없다. 로제타넷코리아와 큐빅싱크는 이에 앞서 삼보컴퓨터를 중심으로 인텔 등 협력사와의 거래에 이 모델을 적용해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무리한 바 있다.

장진태 큐빅싱크 사장은 “비록 국내에서는 로제타넷 보급이 활발하진 않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IT업계를 중심으로 보급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에 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내외에서 활발한 보급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04년도 對中 통상전략 및 WTO 협상전망 세미나 개최

현재 세계통상환경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등을 중심으로 쌍방간 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유럽의 환경규제 및 중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 보호무역 조치들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그리 밝지만은 않은 통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더욱 높아지고 있는 세계통상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회는 지난 12월 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2004년도 對中 통상전략 및 WTO 협상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칸쿰 각료회의 이후 WTO DDA 협상전망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산자부 김창규 국제협력기획단장은 DDA 협상은 칸쿰 각료회의 결렬 이후 최근 대사급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여기서도 회원국들이 대부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며 비농산물, 환경, 규범 등 협상 주요 이슈들에 대해 우리 나라의 산업 및 수출 등을 고려하여 같은 입장 국가들과 공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통상법제도(반덤핑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자로 나선 중국 현지의 허운학 통상전문 변호사는 중국 반덤핑제도의 현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반덤핑 제도시 중국이 자국산업에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조사기간 지연과 방대한 내용 등으로 대





응에 어려움이 있으나 중국의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고용 등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응소가 있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마지막 발표자인 유미법인의 송만호 대표는 “중국내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 및 우리업체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통해 개별기업수준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정보부족 및 고비용으로 한계가 있다며 한국기업 공동의 단체를 조직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관련기관 및 업계의 통상 및 수출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최근의 무역분쟁과 높아지고 있는 통상장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전자산업 경기전망 세미나

-내년 IT산업 투자리수 성장-



2004년 우리나라의 전자·정보통신산업은 세계 IT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내수 모두 두자리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본회(<http://www.eiak.org>)가 지난 12월 11일 '2004년도 전자산업 경기전망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2004년도 전자산업 수급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 전자부문의 수출과 내수는 올해보다 각각 16.1%, 10.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전자업체들도 70% 이상이 내년도 전자산업 분야의 생산이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본회 최영훈 본부장은 “국내 전자산업은 기술 발전 및 디지털컨버전스가 심화됨에 따라 내년에 고도성장이 예상되며, 세계 IT산업의 본격 회복세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수급전망에서 전자부문 수출은 올해에 비해 16.1% 증가한 858억5800만달러, 수입은 18.5% 늘어난 525억550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수는 10.2% 늘어난 93조2950억원, 생산액도 수출과 내수 증가에 힘입어 올해보다 17.1% 늘어난 140조9,5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본회가 지난달 말 주요 전자업체 3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4년도 전자산업 경기전망'에서는 응답기업의 70.6%가 내년도 전자부문 생산이 호전될 것으로 답해 관련업계가 내년도 경기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43.7%가 수출증가를 꼽았고 다음으로 21.4%가 내수증가를 들었다.

내수는 9.3%가 크게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39.5%는 다소 호전, 36.4%는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해 대부분 업체들이 올해에 비해 점진적인 성장세를 예상했고 14.0%는 다소 악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견해를 보였다. 증가요인으로는 신제품시장 확대(49.1%)와 소비심리 확대(23.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출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로는 중국시장 수요지속(32.2%), 미국IT 경기회복(25.6%), 가격품질경쟁력제고(20.0%) 등을 들었다.

국내 첫 '스마트 홈 쇼' 2005년 6월 개최

10대 차세대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인 지능형 홈 산업 발전을 촉진하게 될 전문전시회가 오는 2005년 창설된다.

산업자원부·전자산업진흥회·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는 지능형 홈 산업분야 전문전시회인 '스마트 홈 쇼'를 오는 2005년 6월 개최키로 하고 지난 12월 1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국제전시장(대표 홍기화)과 공동주관 협약서를 체결했다.

산자부는 이 전시회를 IT분야 관련산업 전시회와 연계 개최해 국내 최대규모로 내년 개장하는 한국국제전시장 5개홀 전관을 모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 홈 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년부터 KOTRA 조직망을 활용해 해외바이어 및 참가업체 유치 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차세대성장산업으로 꼽은 지능형 홈 산업분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이 전시회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대표적인 전시회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능형 홈'이란 가정 내의 모든 정보·가전기기가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돼 누구나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가정환경을 의미한다. 이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올해 612억달러로 오는 2007년에는 2627억달러, 2012년 3791억달러로 연평균 22.4%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

rt Home Show 2005 협약 체결

